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공식 포스터.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 준비 만전

4월 20일 개막...공식 포스터·주요 행사 등 공개 트리아트길·보리쿠기 등 볼거리·먹을거리 풍성 국악공연·버블쇼·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도

고창군이 '청보리밭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4월 20일 개최되는 '청보리밭 축제'에 대비해 최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식 포스터와 주요 행사 등을 공개했다.

포스터는 새벽녘 안개에 휩싸인 청보리밭의 신비로움과 산책길 속 오두막의 정겨운 풍경이 표현됐다.

16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황금손 셀카 인증, 산책로 트리아트길 등의 볼거리와 보리쿠기·음료시식 등의 먹을거리, 특산물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한 살거리 등 주요 테마로 운영된다.

또 축제기간 중 토요일에는 봄소풍을 콘셉트로 한 국악공연과 버블쇼, 마술쇼,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는 관람객들에게 음식점과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가격의 10%를 할인해 축제장을 지역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일반음식점 32곳, 풍천장어전문점 24곳의 음식점과 상하농원, 석정휴스파 등 주요 관광지 등이 할인 행사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 세심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등의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순창 팔덕지 수변부지에 관광호텔 짓는다

총사업비 360억 들어 온천·대형연회장 등 갖춰

순창군은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70실 규모의 관광호텔(조감도)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강천파크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360여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개발 프로젝트이다.

군은 최근 강천파크를 대상으로 한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부지에는 관광호텔과 보양 온천, 대형연회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호텔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착공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은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라며 "행정과 민간이 합심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왜곡된 항일·친일 역사 바로알기 교육·현장학습 전북인재개발원, 공무원 대상

전북도인재개발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도,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항일과 친일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핵심리더 양성, 전북 홍보교육과정 등에 우선 반영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3·1운동과 항일투쟁사', '우리역사 바로알기' 등의 주제로 역사관 교육 및 역사 유적지 현장학습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수준 높은 '전북인의 항일 독립운동사 과정'을 별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북도인재개발원은 교육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북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 기념관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답사 등의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3·1운동까지 이어지는 항일 투쟁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제3대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대식을 마치고 전북도연합회 산하 시군회장과 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연합회 제공>

정읍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유진섭 시장 등 100여명 참석...소상공인 권리·이익 대변

정읍지역 소상공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제3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장락현)가 출범했다.

지난 23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출범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와 취임사, 임원 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강락현 회장은 취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정책 허브이자 대변인으로 신뢰받는 연합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익산·완주 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기금 확보

골프·탁구 축구·펜싱·농구 등 선수 저변확대·육성 나서

군산스포츠클럽 등 전북지역 3개 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군산스포츠클럽과 익산스포츠클럽, 완주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의 '2019 선

수저변확대지원 및 스포츠클럽 선수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지도활동 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과 지역 내 선수저변확대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

군산스포츠클럽(골프·탁구)과 익산

스포츠클럽(축구·펜싱)은 선수저변확대지원과 선수육성선정사업에 모두 선정돼 각각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선수육성선정사업에 이름을 올린 완주스포츠클럽(농구)은 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한체육회는 공모에 참여한 전국 스포

츠클럽을 대상으로 사업기획과 사업운영(종목 운영계획·지도자 활용방안 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최형원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내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북지역 스포츠클럽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구축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발표

대상에 권미정씨 '만자무늬테이블' 선정

남원시가 올해 최고의 옷칠 목공예 작품으로 권미정 작가의 '만자무늬테이블'을 뽑았다.

남원시는 '제22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지난 22일 시상식을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개최했다.

남원시 전국 옷칠목공예대전은 전통적인 옷칠 목공예문화를 계승하고 목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의 장인들로부터 우수한 옷칠 목공예 작품을 접수 받았다.

올해는 권미정 작가의 '만자무늬테이블'이 최고 작품으로 선택돼 대상이 수여됐다. 이 작품은 짙은갈색 기법으로 만자문

을 정교하게 시문(사립)을 달아 만든 문)됐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색상대비가 조화되고, 마감처리가 깔끔하게 표현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받은 권 작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3000만원이 주어졌다.

금상에는 옷칠 목공예부문과같이부문에 각각 최선대사의 '모란꽃과반', 최용석씨의 '꽃'이 선정됐다. 시는 대상과 금상을 포함해 옷칠 목공예부문 28점과 같이부문 14점 등 총 42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수상작품은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KCDF 전시관 등 4개 지역에서 전시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